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ISSUE PAPER

### 대학생 스포츠 동아리 참여 현황과 미래 스포츠 산업의 발전

작성: 권형일(중앙대학교)

- I 미래 생활체육의 적극적 소비자로서의 대학생
- II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대학생 집단이 갖는 중요성
- III 대학생 스포츠 동아리 및 관련 대회 현황
- IV 대학생 스포츠 동아리의 거버넌스
- V 맺음말
- VI 참고문헌

## 요 약

대한민국의 스포츠 정책은 전문체육 중점에서 생활체육 중점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로 모든 국민들이 전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초·중·고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체육활동이 존재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각 지역의 생활체육 동호회가 존재한다. 이 두 개의 집단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또한 장려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양체육의 강좌 수는 경제적인 논리와 정부지원 사업 유치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학에 존재하는 스포츠 동아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 대학 스포츠 동아리에 대한 정확한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대학생선수들이 어떠한 종목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회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한 비공식적인 자료가 수합되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축구 동아리 리그인 SUFA리그에는 36개 정도의 축구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스누민턴배 전국 동아리 배드민턴대회에는 1,600여개의 팀이 참가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총장배 전국 아마추어 대학동아리 농구대회에는 41개 팀 51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참여는 결국 생활체육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자원인 것이다. 현재 대학 엘리트 스포츠의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고 스포츠 동아리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대학 스포츠 동아리와 대학 엘리트 스포츠를 연결할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 1. 미래 생활체육의 적극적 소비자로서의 대학생

대한민국의 스포츠 정책은 엘리트 선수 육성 위주의 정책에서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국 예산을 보았을 때,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활체육육성의 예산이 대부분의 연도별 예산에서 전문체육육성의 예산보다 더 크게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08-2018).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막판 몇 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전문체육육성에 대한 예산의 크기가 생활체육육성의 예산 보다 큰 해가 몇 해 있지만 우리나라의 스포츠 정책은 이제는 생활체육에 대한 육성이 전문체육의 육성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생활체육의 궁극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생애주기에 걸쳐 적극적인 생활체육의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체육의 '적극적 소비자'는 국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한 혜택을 직접 몸으로 경험할 경우에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규체육시간이 존재하고 이와 별도로 학교 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 등등의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이 존재하여 신체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인성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학교폭력을 낮추고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생활패턴을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김기철, 서지영, 유창완, 2015).

이와 달리, 지금의 노인 인구는 현재 제도권 교육 안에서 성장한 학생들과는 많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안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체육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지만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니즈를 채우다보니 신체활동에 대한 요구는 항상 가장 낮은 우선순위에 존재하였다. 이러한 유소년기를 거친 노인 인구는 어렸을 때부터 신체활동이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현재에도 생활체육의 적극적 소비자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소비자로 남아있게 되었다. 적극적 소비자 혹은 소극적 소비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 6년 정도가 지난 일이라고 기억이 된다. 이 날도 노인정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파견되어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보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동네 어르신들이 조금씩 동네 노인정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행사와 관련된 직원에게 다

가와 뭔가를 물어보셨다고 한다. “오늘 기념품 혹시 있어?”라고. 이 분들은 체육활동이 중요하기보다는 모임이라고 해서 모임이면 기념품을 주는 지가 더 중요한 분들이다. 이 분들은 분명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소비자인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참여하는 집단인 것이다.

현재 노인인구를 생활체육의 적극적 소비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인구는 어렸을 때부터 체육활동이 가져다주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체활동 자체가 습관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생활체육의 적극적 소비자는 지금 제도권교육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소년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제도권과 비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동네에 있는 축구, 수영 등의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신체활동의 재미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가면서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장하고 신체활동 자체가 습관화가 된다면 이들은 향후 국내 생활체육의 적극적 소비자로서 국내 스포츠산업의 근간을 만들어 줄 희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지금의 유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저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초·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일반인의 생활체육도 아니다. 저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 두 집단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학생들의 생활체육이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경제성의 논리와 정부 지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양체육 수업의 수를 줄였다. 신민혜와 조남기(2016)는 국가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들이 평가지표 향상을 도모하고자 외부강사의 의존율이 높아 '전임교원담당강의비율'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양체육 수업을 줄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앙대학의 경우에도 2011년도에는 전체 115개의 교양체육 강좌가 개설이 된 것에 비해 2019년에는 고작 48개의 교양체육 강좌만이 개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 두 개의 대학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결국 대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동아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초·중·고의 스포츠클럽 활동과 달리 이 활동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며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생활체육 시장이다. 지역별로 리그전을 한다거나 전국적인 단위의 리그전을 하는 등의 조직화된 움직임

들이 보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제도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 어떠한 스포츠 동아리가 있고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이러한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한 정부관련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동아리의 중요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본 글에서 제시된 스포츠 동아리 현황은 통계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웹사이트나 각 학교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교신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는 점을 미리 말하고자 한다.

## II.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있어 대학생 집단이 갖는 중요성

서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학생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습관은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더불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크기와 질을 결정해 줄 중요한 요인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들의 생활체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란 집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인 수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이 큰 집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전국 대학생 수는 2,769,522명으로 전체 인구수인 51,422,507명의 5.38%를 차지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2017년 전체 대학생 수는 2,890,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27%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높은 일인당 국민 소득을 자랑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대학생 수는 전체 인구의 1.75%밖에 되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2016년 대학생 수는 전체 인구의 2.36%에 불과하다. 위의 자료들은 각 나라의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전체인구 대비 대학생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라는 집단은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집단인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란 집단은 어쩌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집단일 가능성이 많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과 대학을 졸업한 인력의 평균 임금의 격차는 월급여액 기준으로 100여만 원 정도가 난다. 즉 1년 연봉을 따진다면 대학을 졸업한 인력의 평균연봉이 약 1200만 원 정도 더 많다는 것이다.

표 1. 학력별 임금 현황

년도	고졸(월급여액)	대졸(월급여액)
2018	2,212,000	3,254,000
2017	2,101,000	3,157,000
2016	2,023,000	3,112,000
2015	1,956,000	3,031,000
2014	1,941,000	2,965,000
2013	1,925,000	2,898,000
2012	1,835,000	2,808,000

출처 : 통계청

그리고 이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백서의 내용에 적용을 시켜보면 결국 가계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여스포츠나 관람스포츠에 사용하는 연간활동 지출이 높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 가계 소득별 스포츠 연간 활동 지출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저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생활체육활동이 더 많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들의 대학 안에서의 생활체육이 다른 연령의 사회 집단만큼 충분히 제도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2. 2015년 가구별 참여스포츠 및 관람스포츠 연간 활동 지출 (평균)

	(단위 : 만원)				합계
	참여스포츠 (활동지출)	참여스포츠 (용품지출)	참여스포츠 (대회지출)	관람스포츠 (관람지출)	
200만원 미만	33.8	21.4	0.1	2.2	57.5
201~300만원	64.7	20.3	0.4	2.4	87.9
301~400만원	91.5	29.1	1	2.6	124.2
401~500만원	129.9	43	2.1	3.5	178.6
501~600만원	148.7	42.8	0.8	3.6	196.0
601~700만원	171.3	45.3	1.7	6.5	224.8
701~800만원	302.8	69	5.4	3.5	380.6
801만원 이상	444.7	120.8	4.5	4.6	574.5

출처 : 2017 스포츠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셋째, 대학에서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 보급이 필요한 이유는 예전과 달리 대학에서 교양체육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국내 대학들이 기존에 제공하던 교양체육수업 종류와 시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중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교양체육이라는 것이 갖는 경제적 효용성이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양체육이라는 수업은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이고 체육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한 강좌에 기껏해야 20-30명만을 받을 수 있다. 강사 1명에게 주는 강의료는 똑 같은데 대형 강의실에 100명 이상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교양체육과목의 이수가 실질적인 구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국내의 대학들은 신문사들이 제시하는 대학 순위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순위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취업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구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회계나 컴퓨터 코딩 등의 교양수업을 필수로 지정하면서 교양체육을 정식 교과목에서 제외하였다. 한 예로 2013년 중앙일보에는 서울대학교에서 2014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 체육과목을 정식 교과목에서 제외하는 비교과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실렸다(정도원, 2013.05.18.) 저자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서론에서 제시하였다.

교양체육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담당하던 유일한 제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학생들이 충분한 신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 관련 동아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그 현 주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 III. 대학생 스포츠 동아리 및 관련 대회 현황

위에서 언급한 서울대학교의 교양체육에 대한 비교과화 방안이 실린 기사에는 서울대 총장배 구기대회의 개최식 사진이 같이 포함되어 실렸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서울대 체육관에 10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총장배 구기대회 개최식이 열렸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진에는 농구, 탁구, 야구 등의 구기 스포츠 동아리 학생들이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 운동복을 입고 정렬해 있는 모습이 찍혔다.

이렇듯 대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는 다양한 자율적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적 스포츠 활동을 대학차원에서 지지하고 촉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총장배 대회라는 것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대학 자체가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한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서울대학교에서는 총장배 구기대회가 열리고 있고 저자가 근무하는 중앙대학교에서도 총장배 축구대회, 총장배 농구 대회 등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경우 구기, 레저, 무예 등의 분과로 이루어진 스포츠 동아리들이 존재한다.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18개의 정식 동아리와 3개의 가동 동아리가 존재하고 이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전체 1,07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자료는 중앙대학교 학생처와 동아리연합회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중앙대학교의 전체 재학생 수가 24,000명 정도인 것을 보면 전체 재학생 인구의 4.45%정도가 스포츠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학교 내에서 행하는 교내경기(intramural)로 끝나지 않고 대교경기(intermural)화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학생 동아리 경기가 열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일단 이러한 대학생 동아리대회를 전담하는 정부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의 분석이나 통계치가 수집이 되고 있지 않다. 저자가 대학 스포츠 동아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축구동아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대학스포츠협의회(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의 KUSF 대학스포츠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으로 축구동아리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있어 이 사이트의 내용을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표. 3>.

이와 함께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몇 개의 종목에 대한 동아리 대회를 관련 웹사이트

트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4, 5>에 제시한다. 대회 이름과 함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참여 팀의 수와 참여 선수의 수를 같이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학생 동아리들을 위한 배드민턴 경기대회는 상당히 많이 치러지고 있다. 저자가 조사한 바로도 현재 연간 12개 이상의 전국적인 대회가 존재한다. 매 대회마다 수백개의 팀들이 참가를 하고 있어 대회 현장에 가보면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대회를 개최한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어 행사의 운영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대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외부 스폰서가 확보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주최 측의 스포츠 마케팅/이벤트 마케팅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표 3. 대학생 동아리 축구 대회

리그(대회) 명칭	설명
SUFA 리그	서울권의 대학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 대교경기로 SUFA (Seoul-area University Football Association) 리그가 존재한다. 현재 서울권 24개 대학 36개 축구 동아리가 참가한다. 다른 대학동아리들이 후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없어진 것을 상기하며 이랜드 계열 뉴발란스의 후원을 확보하며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삼성 대학생 챔피언스리그(SUCL)	수원삼성 블루윙즈 대학생 서포터즈 '어태커'가 주최하는 대회이다. 수원지역 7개 대학교에서 예선을 거쳐 총 12개의 축구동아리가 참가한다. 결승전은 수원삼성의 K리그 홈경기에서 앞서 오픈게임으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전국대학스포츠동아리 대회	대한체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체육인협회 각 종목별 대학생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매 해 가평군 일대에서 대회를 진행한다. 전국 50여개 대학과 10여개의 고등학교 동아리가 참여해 축구뿐만 아니라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의 종목에서 대회를 진행했다.
K리그컵여자대학클럽 축구대회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숙명여대가 공동주최하는 대회로 순수 아마추어 여자축구 동아리들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이화여대, 한국체대, 숙명여대 등을 비롯해 총 16팀이 참가한다.
Bepro 서울 대학 챔피언스리그	아마추어 축구리그에 팀/개인 기록관리 및 팀/대회 운영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회사인 비프로컴퍼니가 개최한 아마추어 대회이다. 서울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16팀이 참가한다. 3-4위전과 결승전은 afreeca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등 아마추어 축구대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비프로컴퍼니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경기분석 툴을 이용해 경기의 인포그래픽과 매치리포트 등을 제공하였다.
서울컵	서울시의 축구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정착을 위해 FC서울과 서울시설공단이 주최하는 순수 아마추어축구대회다. 선수경험이 없는 서울시 내 직장인 축구 클럽과 남녀 대학 축구 클럽이 참가대상으로 그 동안의 아마추어 축구대회와 차별화를 두었다. 남자부 32팀(직장인 16팀, 대학팀 16팀)과 여자부 8팀이 참여한다.

표 4. 대학생 동아리 배드민턴 대회

번호	대회	참가팀 및 인원
1	서울대학교 스누민턴배 전국 동아리 배드민턴대회	1,653팀
2	단국대학교 전국대학동아리 배드민턴대회	2017년 466팀, 542명/ 2018년 505팀, 601명/ 2019년 470팀, 589명
3	맥스-고려대학교 전국 대학동아리 배드민턴대회	27개 대학, 257명
4	경희대학교 하이클리어 전국 대학 동아리 배드민턴 대회	221팀
5	동아대학교 SNITCH배 영남지역 동아리 배드민턴대회	267팀
6	경기대학교 총장배 전국대학 배드민턴대회	328팀
7	요넥스 누리단체전	116팀, 490명
8	UBCA VICTOR CUP 전국 대학동아리 배드민턴 대회	584명
9	아디다스컵 대학 배드민턴 동아리 대회	9개 대학, 300명
10	교육대배 대학 배드민턴 동아리 대회	60팀, 350명
11	빅터 비스타 오픈 부울경 대학 배드민턴 동아리 챔피언십	20명
12	아디다스 배드민턴 누리 오픈 챔피언십	12개 대학, 32팀

표 5. 대학생 동아리 농구 대회

번호	대회	참가팀 및 인원
1	수원대학생동아리 농구대회	12개 대학, 150명
2	국민대학교 총장배 전국 아마추어 대학동아리 농구대회	41팀, 510명
3	군산대학교 호 남권 대학 동아리 농구대회	15팀
4	인천대학교 총장배 전국대학생 농구대회	20팀
5	순천대학교 보스배 대학동아리 농구대회	22팀
6	단국대학교 범 정배 전국대학동아리 농구대회	24팀
7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24팀
8	경기대학교 광 교배 전국대학동아리농구대회	16팀
9	2019 KUSF 농구(남) 클럽챔피언십 중부지역예선	37팀
10	2019 KUSF 농구(여) 클럽챔피언십 1차 전국 예선	10팀
11	2019 KUSF 농구(남) 클럽챔피언십 광 주/전라지역 예선	10팀
12	2019 KUSF 클럽챔피언십 무 제한 급 대회	6팀

## IV. 대학생 스포츠 동아리의 거버넌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2010년 당시 팀 내 폭행 및 성폭행, 입시 비리, 수업 비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정재용, 2015) 대학엘리트 스포츠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갖고 설립이 되었다. 당시 대학 간의 대교스포츠가 존재하였고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현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학교는 98개교)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관장하는 기관이 전무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엘리트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40여개의 회원교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당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시작 하였으며 설립의 과정에서 미국의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NCAA)을 벤치마킹 하였다. NCAA의 전신은 1905년에 설립된 Inter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IAAUS)로 이 조직은 미국의 대교스포츠 중, 그 당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아메리칸풋볼의 안전문제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그 당시에는 아메리칸 풋볼로 인해 많은 명문대학생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다. 1905년 한 해에 18명의 대학생이 사망을 하였고 14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적으로 시작된 대교스포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국가기관이 아닌 순수한 민간조직이 생겨나고 이 민간조직이 지금 미국의 대교스포츠의 거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NCAA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전체 대학인구(2017년 현재 2,769,522명)의 0.52%(14,090명, 문화체육관광부, 2017)인 대학생 엘리트 선수를 위한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워낙 대교스포츠 학생선수가 수적으로 적고 프로스포츠의 인기로 인해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보니 산업화가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과거 이슈페이퍼(정재용, 2015)에서도 대교스포츠의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긴 하였지만 현재 대교스포츠는 산업화의 관점에서는 지속적 인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대학농구 시합은 몇 명 되지 않는 관람객을 모으는 정도의 집객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 스포츠팀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식어가는 인기와 더불어 대학의 학사과정이 투명해지고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다보니 대학교의 학생선수들은 운동과 학습을 병행해야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

다. 2017년에는 연세대학교 축구팀 14명의 선수가 최저학력을 지키지 못해 시합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연세대학교가 리그전에 참가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정영재, 2017.04.02.).

이러다 보니 많은 선수들이 대학 진학 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팀으로 입단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2020년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NC 다이노스의 전체 10라운드 지명에서 10라운드의 동의대 출신 투수 노상혁을 제외하고 모든 9명의 선수가 고등학교 선수였으며 롯데 자이언츠의 경우는 10라운드 모두 고등학교 선수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야구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2018-2019 프로배구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도 얼리드래프트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였다. 1-2라운드에 지명된 총 14명의 선수 중 오직 다섯 명 만이 대학교 4학년이었다. 특히 1라운드에서는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지원을 한 고졸 선수 두 명이 모두 선택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된다면 대학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층은 점점 얇아질 것이다. 2017년 발행된 체육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7)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록되어있는 대학생 선수는 남자 11,031명, 여자 3,059명으로 모두 14,090명이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재용(2015)의 문건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종합운영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29개 대학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등록된 선수는 4,520명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있다. 또한 정재용(2015)은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42개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었고 체육특기자 모집대학교 34개교가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대학에서 스포츠 팀이 갖는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들은 평균 4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여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대부분이 교비이며 자체 수익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재용, 2015).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학 엘리트스포츠의 산업화는 지금보다 한 층 더 어려워 질 것이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존재 목적은 점점 더 명분을 잃어갈 것이다.

대학생 엘리트 선수층이 많아지는 것과는 달리 많은 대학생들이 스포츠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참여수준은 상당히 놀랄 정도로 체계적이고 세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생적으로 리그를 꾸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외부 스폰서를 끌어들이고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하여 리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 스스로가 스포츠를 산업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종목 협회나 단체와는 달리 스스로 펀드레이징(fund raising)을 하고 외부 스폰서와 비즈니스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는 참여하는 학생의 절대적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 이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신들의 브랜드 이름과 로고가 노출되기를 바란다. 저자가 직접 참가해본 단국대학교 전국대학동아리 배드민턴대회는 매 해 600명에 가까운 배드민턴 인구가 참여를 한다.

이러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아직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집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대학동아리나 스포츠클럽에 대한 아무런 일도 안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의 동아리 농구대회 표에서 제시되었듯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주최의 동아리 농구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협의회 설립 목적이 대학 엘리트스포츠이다 보니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거버넌스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스포츠 동아리활동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도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대학스포츠협의회가 담당을 해야 할 대학 스포츠동아리 관련 업무는 크게 2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황에 대한 파악이다. 저자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정부 기관 어디에도 대학 스포츠 동아리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은 각 대학의 학생처 정도이지만 이마저도 어떠한 동아리가 등록이 되어있는 지 정도이다. 저자가 근무하는 중앙대학교에는 학생들의 동아리를 관장하는 학생들의 자치 조직인 동아리 연합회가 있으며 이 연합회에서 각 동아리의 등록 학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회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스포츠 동아리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대학 동아리 스포츠와 대학 엘리트 스포츠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이다. 대학의 엘리트 선수를 확보하면서 대학스포츠 동아리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적인 가능성은 최근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통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두 번째 권고안을 통해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엘리트 대회를 같이 여는 방법을 권고하였다(스포츠혁신위원회, 2019, 5, 31).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교의 일반학생들이 즐기는 생활스포츠라는 영역과 엘리트 스포츠의 영역이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있게 되고 이는 결국 이 두 영역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없애는 방법이 될 것이다. 생활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벽을 허물고 이로 인해 생활스포츠의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엘리트 선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면 이는 엘리트 선수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웃 나라 대만의 경우 매년 대학생들만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체육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엘리트 시합과 동아리시합을 섞어 놓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18개 종목에 157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15,000여명의 학생이 참가를 하였다. 이 중, 8,340명은 학생선수의 신분이었고 나머지 학생은 체육관련 학과 학생이나 타 학과 재학 중인 일반 학생들이었다. 위의 통계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야구, 축구, 배구, 농구가 빠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기 종목을 포함한다면 참여인원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 행사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축구와 야구의 참여 구분을 보면 학생선수, 체육계열 학생, 일반학생으로 리그가 나뉘어져 있어 유사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끼리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학생선수와 동아리 선수가 같은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방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V. 맺는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왜 정기적인 신체활동이 중요한지와 현재 어느 정도로 대학 스포츠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어있는 지에 대한 현황을 비공식적인 자료 수집과정을 거쳐 알아보았다. 자료 확보나 분석이 비공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관장하는 기관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각 대학의 학생처나 동아리연합회와 같은 조직에서 등록된 동아리 참여자들의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어떤 대회에 출전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동아리 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학동아리나 동아리대회에 관련된 어떠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위의 글에서 제시하였듯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마도 대학생들의 스포츠동아리활동을 관장하는데 가장 적절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조속히 대학스포츠동아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주관 기관으로서 대학 스포츠동아리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대회의 주관, 통합 스폰서십 등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은 최근 큰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인야구는 자생적인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현재 18,000개 이상의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참여인구는 4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또한 정부의 통계는 아니고 게임원

(www.gameone.kr)이라는 사회인야구 관련 최대 커뮤니티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치이다. 사회인야구의 활성화는 배트 등의 국내 스포츠제조업을 활성화 시켰으며 은퇴한 선수들은 야구 아카데미를 통해 레슨을 제공하고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인야구 리그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 사례들도 있으며 사회인야구의 선수 정보, 팀 정보들을 생성하고 가공하여 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스포츠정보산업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골프존을 선두로 한 스포츠 VR시장은 이를 놓치지 않고 VR야구 게임을 만들어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사회인야구와 더불어 배드민턴이나 탁구의 생활체육인구 증가도 스포츠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은 소수의 엘리트스포츠 선수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모여서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나아가 스포츠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이 있어야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생활체육소비자가 아닌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생활체육의 적극적 소비자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엘리트 스포츠는 산업적인 성장을 이뤄내기에는 많은 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대학의 엘리트 스포츠 팀들은 점점 더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다. 대중의 관심은 멀어져만 가고 홍보의 수단으로 스포츠 팀을 운영하던 대학들은 예산부족으로 팀을 해체하고 있다. 결국 엘리트 선수를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길러내는 시스템이 점점 더 그 효과성을 잃어가고 있다. 아마도 먼 미래에는 대학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사라질 수도 있다. 현재의 트렌드를 본다면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보다는 오히려 추측이 더 가능하다. 그렇다고 대학생이 주가 되는 엘리트 선수층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생활스포츠로서 대학스포츠 동아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한국대학스포츠협회가 하루빨리 진단하고 발전시켜 전생애주기를 통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에 참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원고를 마친다.

## VI. 참고문헌

- 김기철, 서지영, 유창완. (2015).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교육성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4(5), 301-315.
-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08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9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1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6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스포츠산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도 체육예산 재정집행 계획.
- 스포츠혁신위원회(2019, 5, 31).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
- 신민혜, 조남기 (2016).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따른 교양체육에 대한 대학의 정책변화와 대응.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3), 113-124.
- 정도원(2013.05.18.). [체덕지 교육 현주소는] ④ "교양 체육 없앨까" 서울대의 역주행.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11551049>
- 정영재(2017.04.02.). 학점 미달 땐 대회 못 나가 ... 연세대 축구부 14명 '발목'.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1430035>
- 정재용(2015). 대학스포츠 산업화, 시스템 개혁이 해법.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제 2015-4호), 한국스포츠개발원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발간목적: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는 스포츠산업 전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안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편집위원회

편집 위원: 정지명(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유의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상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수(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고경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신성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박선영(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